

# 전남서남권 지역 경제일지

(2024년 2월중)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세계적인 글로벌 호텔 브랜드 “하얏트” 목표에 들어선다<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목포시가 1.31일 글로벌 체인을 갖춘 호텔 브랜드 하얏트와 시행사인 (주)파스와 함께 체류형 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관광호텔 유치 협약식을 진행했다. 호텔 건립 시행사인 (주)파스와 하얏트 호텔 그룹에 따르면 170여 객실, 4성급 호텔인 하얏트 플레이스 목포(호남동 67번지 일원) 유치가 확정되어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세계적인 지명도를 갖춘 하얏트가 목포에 들어서게 되면 국제적인 체류형 해양관광도시를 꿈꾸는 목포시에도 한층 더 탄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li></ul></li></ul>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남도, 창업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잇따라<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라남도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예비창업자와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 발굴·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예비창업패키지를 통해 올해 전국 1천923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전남에선 30개 내외로 선발될 예정이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올해 전국 590개 초기창업기업을 선발하며 전남(순천대)에선 29개 내외 기업이 포함될 예정이다.</li></ul></li></ul>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장흥군 청년발전위원회,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의결<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장흥군은 지난 1월 31일, 군청 상황실에서 청년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장흥군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장흥군은 그동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청년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FGI)을 실시하고, 청년정책 추진현황, 국·내외 정책에 대한 분석 등을 진행했다. 장흥군은 ▲복지·문화(안전하고 즐거운 일상 보장) ▲일자리(도전과 기회 보장) ▲교육(발전에 대한 가능성 보장) ▲주거(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권 보장) ▲참여·권리(청년이 직접 수립하는 정책) 5대 핵심분야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체계적인 청년 맞춤형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li></ul></li></ul>
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남도,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1조원 발행<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라남도는 올해 22개 시군에서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1조원 어치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9년 처음으로 1천100여억원을 발행한 뒤 매년 발행 규모를 확대해 2023년 1조원을 발행했다. 전남도는 국·도비 325억원을 지원한다. 할인율은 5~10%를 상시유지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2월 한달간 할인율을 10~15%로 대폭 상향하고, 1인 구매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 시행한다.</li></ul></li></ul>
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남도,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 도입<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라남도는 ‘2024년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화순, 강진, 진도 소상공인연합회 지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전남도가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시군 소상공인연합회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 공동마케팅 부문, 온라인마케팅 부문, 소상공인교육 부문 등을 패키지로 구성해 추진한다.</li></ul></li></ul>

2.21	<p>▶ 강진 농업인 교육 4차 산업혁명 기술 적극 도입한다.</p> <p>○ 강진군이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한우, 시설원예스마트팜, 인플루언서 마케팅 3개 과정 107명의 신입생이 참석한 가운데 제 1기 디지털농업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디지털농업대학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농업인 교육도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시대변화에 따라 기존의 농업재배기술의 획일적인 교육을 탈피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한 스마트기술 및 농산물 마케팅 등의 다양한 교육내용으로 새롭게 시작한다.</p>
2.26	<p>▶ 목포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시행... 시민 불편 최소화 총력</p> <p>○ 목포시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17년 만에 전면 개편된 시내버스 노선으로 26일부터 시범운행을 시작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노선개편 용역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내버스 전면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반영하여 총 14개 노선을 8개 노선으로 개편했다. 시는 노선개편으로 인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정류장 노선 안내문 부착, 전 세대 안내문 배부, 다중이용시설 홍보 포스터 부착, 시 홈페이지 개편 노선도 게시, 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드 뉴스 게시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p>
2.26	<p>▶ 영암군,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월세 특별 지원</p> <p>○ 영암군이 이달 26일부터 내년 2.25일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시작해 올해 2차로 추진되는 이 특별지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으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해준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19~34세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거주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p>
2.26	<p>▶ 해남군, “토종 농산물 지킨다” 재배 농가에 생산비 지원</p> <p>○ 해남군은 토종 농업자원의 보존·육성으로 자원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생산비를 지원한다. 토종농산물은 생산량이 적고 경제성이 낮아 소수의 농가들에서만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업은 다양한 작물 육성을 지원해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고 우리지역 토종 농업자원을 보존·육성해 새로운 소득 특화작물로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수수, 토란, 메밀, 울무 등 지역의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ha당 50만원의 종묘, 비료, 농약비 등 재배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p>
2.29	<p>▶ 영암군, 아이 1명에게 최대 2억6,200만원 지원</p> <p>○ 영암군이 결혼부터 출생, 육아에서 대학까지 아이 1인당 최대 2억6,200만원을 지원한다. ‘군민이 낳으면 영암군이 키운다’는 취지로 영암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종합계획은 ‘출산장려금’과 ‘가족돌봄’ 중심의 기존 정책 기조에 대한 점검과 반성에서 출발했다. ‘생애주기별 단계적 지원’과 ‘지역사회 육아 돌봄 체계 구축’을 축으로 양육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려는 민선 8기 영암군의 역점 시책이다. 종합계획에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육아환경조성, △교육, △경력단절 여성 지원, 7개 분야 49개 사업이 담겨있다. 영암군민이 아이를 낳으면 영암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구조를 정착하는 것이 목표다.</p>